

내달 초 검찰 수뇌부 인사... 하마평 무성

대선 정국 '빅4' 주목

대선 일정을 고려해 예년보다 이른 시점인 다음달 초쯤 검사장급 승진과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해져 참여정부 마지막 해의 검찰 수뇌부 진용이 어떻게 짜여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인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검사장급을 9~1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 여론으로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빅4' 누가 되나=대선 정국에 관습한 선거사범이나 불법·폭력 시위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가 지명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박영수(연수원 10기) 대검 중수부장과 한 해 후배인 문성우(1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찰 중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중수부장은 현대차그룹의 1천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를 찾아내 정공구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강한 추진력이, 문 검찰국장은 기획력과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게 강점이다.

대검 중수부장 후보에는 대선자금 수사를 무난하게 이끌었던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의 문효남(11기)의정부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병역비리 사건을 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박영수·문성우씨 경찰

연수원 13~14기 대거 검사장 승진 가능성

두지휘했던 이승규(11기) 서울서부지검장이 선두권에 서 있다.

신상규(11기) 창원지검장, 대구·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한 '특수통'인 김종인(12기) 전주지검장 등에서 발탁할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수부장에 호남권 인사가 기용될 경우 지역 색이 얇은 충남 출신의 '공안통'인 천성관(12기) 울산지검장과 경기

출신인 차동민(1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는 1순위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준보(11기) 청주지검장과 이귀남(12기) 대검 공안부장이 결합하고 있고 김준규(11기) 법무부 법무실장도 거론되고 있다.

◇검사장 승진 후보는=정상명 총장과 동기인 임승관 대검 차장이나 이종백 서울고검장 등 고위직의 용퇴 여부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의 별'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는 연수원 13~14기들이 중심에 서 있다.

13기 중에서는 호남 출신의 박철준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구 출신의 정진영 의정부지검 고양지검장, 경남 함양 출신의 박성득 서울고검 검사 등이 유력시 된다. 경남 남해 출신의 박태규 대전고검 검사와 부산 출신의 조한욱 부산동부지검 차장검사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반기문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집무 첫날인 2일 뉴욕 유엔본부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람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6자회담 역할 하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공식업무 돌입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2일 (현지시간) 공식업무에 들어가 유엔에 첫 한국인 사무총장시대를 열었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 첫 출근, 유엔 평화유지활동 순직자들을 기리는 방을 먼저 찾아 묵념을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출근 소감을 밝혔다.

반 총장은 "수단 다르푸르 문제, 레바논,이란,이라크 등 중동문제, 북한 핵 문제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은 현안들은 사무총장 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사무총장으로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국가 및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밀접하게 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처형 문제에 대해 "후세인은 이라크인에 대한 흉악한 범죄의 책임이 있고 우리는 이 같은 범죄의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형은 각국에 법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아시아프까지 유엔 이라크 특사 등이 사형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유엔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을 야기했다. 반 총장은 이어 '사무총장과와 만남' 시간을 마친, 사무국 직원 및 전 세계 유엔 직원들과 공식적인 상견례를 가졌고 화상연결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8개 지역사무소 대표들의 환영인사를 받았다.

한편 반 총장은 1월 중에 열리는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본부·연합뉴스

대통령 2억354만2000원

올해 공무원 봉급 총액기준 평균 2.5% 인상

올해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급 1.6% 인상을 포함해 총액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5% 인상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봉급은 지난해 2억120만4천원에서 올해 2억354만2천원으로 1.16%가 올랐다.

사병 봉급은 지난해 40%가 오른데 이어 올해는 23%가 인상됐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동결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에 이어 올해는 2.5%가 올랐다. 기본급 인상률은 1.6%인 반면 나머지 인상률은 성과상여급 등에 적용된다.

공무원 봉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에서 올해는 3%로 확대돼 5급의 경우 성과급 차이가 2006년 274만원에서 올해는 449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 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원은 성과급의 비중이 2006년 1.8%에서 2007년에는 5%로 크게 늘어나 성과급의 최대격차가 지난해 247만원에서 올해는 710만원으로 벌어졌다.

대통령은 매월 320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를 포함해 전체 봉급이 2억120만4천원에서 2억354만2천원으로 올랐다. 총리는 직급보조비 172만원을 포함해 전체 봉급이 1억4천741만4천원에서 1억4천923만원으로 1.23%가 인상됐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의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북한 백남순 외무상 사망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사망한 백 전 외무상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이 통신이 소개했다.

백 외무상은 1929년 량강도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으며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국문출판사 사장 등을 거쳐 1998년부터 외무상으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백남준'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열린 남북 당국 회담에도 여러 차례 참가해 남측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과 남북고위급 회담 정치분과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 등의 직책을 맡기도 했다.

자병으로 고생을 해온 백 외무상은 작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말레이시아 팔라푸르를 방문,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외유성 출장 줄 듯

외교통상부, 고위급 활동내역 등 인터넷 공개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내역이 일반에 공개돼 외유(外遊)성 출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대통령 및 임법, 행정,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사

실 및 개략적인 활동내역, 실무급 공무원들의 출장 및 해외연수 보고서, 외국인사들의 방한기록 등을 담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 있을 출장 뿐 아

니라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최근까지의 출장 기록도 사이트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급 참모총장의 출장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외교부는 제외공안에서 받은 고위 공직자 출장 관련 자료를 기초로 관련 부처의 확인작업을 거친 정보를 사이트에 올리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별도의 팀을 구성, 이 작업을 전담토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한국수석 비서, 주력인력사, 광주고시학원

한길 컴퓨터 정비전산학원

매달로 개강! 522-0119

목재가공산업의 새이름 자이리

목재가공산업의 모든것 "자이리" 이쁜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자이리"와 상의하세요!

자이리 사업분야

- 가구산업(사무용, 주거용) -고구시업
- 목재제조사업 -목재주조사업
- 합판가공업 -목재수출업

주소: 전남 목재가공산업발전특별구
대표전화: 061-337-5535
팩스: 061-334-5535